

젊음의 거리로 되살아난 구도심



지난 1일 밤, 광주 동구 광산동 구시청 4거리의 어빈폴리 주변을 젊은이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최근 이 주변은 클럽 등 20대를 겨냥한 업소들이 늘면서 '젊음의 거리'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구시청 사거리 20대 열기...임대료 20%↑ 죽어가던 상권 부활

“젊음은 즐거거리가 많아요. 먹거리가 썩는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매력적이죠”

지난 1일 밤 11시, 20대의 속어로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맞은 광주 동구 광산동 일대는 발디딜 틈 없이 불볕었다. 거리 한가운데 설치된 어빈폴리 아래에서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 무리의 청년들이 춤판을 벌였고, 주변에는 20대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오고 가는 ‘청춘’들의 발걸음 속에 주변 술집은 빈 자리를 찾지 못 할 정도였다. <관련기사 3면>

구도심이 쇠락하면서 한때 외면받던 ‘구시청사거리’가 최근 ‘젊음의 거리’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0~40대가 혼재된 상권이었지만 이제는 20대가 아니면 쉽게 발붙이기 힘들 정도다.

이곳이 젊음의 거리로 바뀐 것은 서울의 ‘유행코드’가 활발하게 이식되면서부터다. 2년 전부터 서울 흥대거리와 강남의 ‘클럽·라운지 문화’를 고스란히 들여온 ‘하우스’, ‘믹스’ 등의 업소가 생겨났고, 최신 유행이던 ‘이자까야’(일본식 주점) ‘반야’, ‘타이쇼’ 등도 이곳에서 젊음층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업주들은 경쟁적으로 20대를 유인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를 치장하고 메뉴를 바꿨다. 연예인들이 짤깁을 무기로 앞다투어 나선 유투 프랜차이즈

도 비어있는 매장을 서서히 점령했다.

이 지역에서 4곳의 업소를 운영중인 이모(36)씨는 “20대는 변화와 유행에 가장 민감하다. 젊음층에 특화된 인테리어 등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고, 이태리식부터 일식까지 다국적 메뉴를 도입하면서부터 손님이 크게 늘어났다”며 “최근에는 인근 상가 임대료도 평균 20% 가까이 상승하는 등 활황을 실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젊음층의 입맛에 맞는 먹거리와 놀이문화의 집합체로 변모한 것이다. 거리 20대를 위한 업소로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30대 직장인을

위한 식당들이 상권 밖으로 밀려난 점도 ‘젊음의 거리’를 가속화시켰다.

충장로 1·2가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상권을 장악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피해 이 곳으로 몰린 점도 한몫했다. 업소 규모는 작아도 다양함과 개성을 앞세운 거리가 조성된 셈이다.

양모(여·20·대학생)씨는 “비슷한 유흥가지만 상무지구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이고, 젊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캐리’가 많다”며 “여기에서는 눈치보지 않고 같은 연령대끼리 마음 놓고 어울릴 수 있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고속 경영권 유지

IBK컨소시엄과 1조원 매각 협상 타결 금호산업 우선매수권...3년내 재인수

금호산업의 자산매각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이 매각된다.

다만, 금호산업은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3년 내 금호고속을 재인수하고,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 운영은 그대로 유지한다.

4일 금호산업 채권은행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IBK컨소시엄(특수목적법인)은 금호고속(100%)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38.74%), 대우건설(12.28%) 지분 등 1조원 규모의 자산 매각 계약을 마련해 채권단의 최종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안에는 금호산업은 금호고속 지분 100%를 IBK컨소시엄에

매각하지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매수권은 행사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3년 이내에 금호고속을 재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고속을 인수한 IBK컨소시엄은 회사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금호산업에 대표 인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금호고속 경영권행사 주체를 두고 금호산업과 IBK컨소시엄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매각이 늦어졌다.

하지만 IBK컨소시엄은 금호고속 운영에 대한 금호산업 측의 노하루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존

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부당산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에 대한 가격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0년 4월 채권단과 체결한 워크아웃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고속사업부문을 분할 매각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해왔다.

금호고속은 금호그룹 창업자인 고(故) 박천익 회장이 그룹을 일으킨 모태이자,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상징성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고속버스시장의 29.3%를 점유한 업계 1위다.

매출은 3400억원, 52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 51P 급락...1800선 붕괴

지난 주말 세계 증시 폭락 여파로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9면>

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0%(51.38포인트) 급락한 1783.13에 마감했다. 하락률과 낙폭 모두 올해 들어 3번째로 컸으며, 1800선이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1026조원으로 줄면서 하루 만에 30조원 이상 증발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예산 규모인 325조원의 35.7%에 해당한다.

주가 급락은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주요 국가들의 경기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유럽과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탓이다.

코스닥지수는 올 들어 가장 큰 폭인 4.51%(21.29포인트) 하락해 450.84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30원 오른 1182.00원에 장을 마쳤다.

한편 NH농협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예상치 못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우려로 지난 5월 코스피가 11.1% 급락했다. 이미 코스피의 변지점

프가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6월 주식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민기기자 emlee@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 2012년 7월 2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광신대학교

☎062)605-1112, 1063

11월 美대선, 승자는 누구인가

앨런 리히트먼 교수 특별강연회...오늘 오후 2시 광주YMCA 무진관

환병이젠 한방(韓方)으로 다스린다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531-중-359호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정신과 협회는 96년 환병을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일종의 문화충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면, 도리, 의무감을 중시하고 침이 미덕으로 여겨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환병의 원인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억울한 감정, 억압적 환경,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 충격, 자식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타인으로부터 서운한 감정, 사업의 실패, 억눌린 감정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제때에 신체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면 심장병, 중풍, 고혈압, 두통, 당뇨병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환병은 무서운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환병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은 상체로 혈액이 몰려서 열이 많고 하체는 혈액공급량이 적어서 허약해지고 차가워지는 현상 즉, 상열하한(上熱下寒: 上實下虛)입니다. 상체의 증상으로 울혈증상이 있습니다. 인체의 상체로 피가 몰리는 현상으로 상체의 혈관이 팽창되어 안면홍조, 눈의 충혈, 심장이 두근거리, 고혈압, 숨이 차고, 귀 울림, 목 근육 경직,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가 오며, 머리에 열이 많아 땀이 많아집니다. 또한 상열증상으로 인해 얼굴 피부 건조, 마른기침, 끈끈한 가래, 비염, 안구 건조감, 탈모, 시력저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체에는 스트레스, 성질, 화를 낼 때마다 혈액과 영양분이 상체로 올라가니 하체는 자연히 혈액공급량이 적어져 대장, 방광, 자궁, 골반, 허리, 무릎 다리가 차가워지고 하체전반부에 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하복부냉감, 대장(변비, 설사), 방광(요실금, 만성방광염), 자궁(생리통, 냉대하, 자궁암, 자궁근종), 골반(만성골반염, 요통, 디스크), 무릎관절염,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환병이 오래 지속되면 전신의 기운이 약해져 전신 무력감, 불면증, 우울증, 의욕저하 만성피로가 되고, 음식물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먹어도 항상 속이 허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국 환병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소하는 것이 최상책이며 운동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 각각에게 어떠한 운동을 하라고 정해 주기도 하지만 각자 여러가지 운동을 해보아서 가장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운동을 택하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더 스트레스 받고 열을 더 받을때는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도 정신과 육체의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균형과 안정을 취해주는 한약 및 침을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며, 상체열을 허강시키고 하체는 따뜻하게 하여 심장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한의원) 전 선형 원장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1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냉면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주차장 안내 (신동열 때밀리 센터가)

화정동 주택은행추선회관

송정리 | 돌고개 | 중앙병원

경희한의원